10월의 기도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0장 19절>

1.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2. 내 뜻과 감정대로 절제함이 없이 말을 해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입술을 제어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3.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진리만 따르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4. 우리의 영과 눈과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마음의 찔림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5.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세계 선교를 향한 비전을 이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에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전 세계의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6. 왜곡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전에 제가 성회를 인도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에 갔을 때, 그곳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전기가 나가고, 가스가 폭발해서 화재가 일어나고, 도로가 무너지고,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저는 호텔에 있었는데, 설교 준비를 마치고 성회 장소로 가기 전에 한 시간 정도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니, 성령이 충만하고 온 몸에 전기 스위치를 꽂아 놓은 것 같았습니다. '야아!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의 대단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도들이 기도할 때 모인 곳이 진동 했었는데, 내가 오늘 기도를 많이 했더니만, 내가 목회하는 동안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는데 오늘 집이 다 진동하는구나!' 그렇게 감격을 하고 있는데, 다음 순간 그게 아니었어요. 하늘도 움직이고 땅도 움직이는데 저는 평생에 지진을 처음 당했습니다.

호텔 건물이 삐걱 삐걱 하는데, 침대가 날아다니고 램프 스탠드가 박살이 나고 텔레비전이 떨어지고 몸을 가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가족들도 주님께 맡깁니다. 나는 이제 주님께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원래 우리 일행은 20층짜리 호텔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미국에서 예약을 담당한 분의 비서가 깜박 잊고 예약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때 지진으로 20층짜리 호텔의 식당이 무너져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죽었는데, 만일 우리가 20층짜리 호텔에 묵었더라면 우리 일행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그 시간에 그 무너진 식당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약을 담당한 비서가 실수한 것에 대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네 짐을 야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평안과 쉼을 누리십시오.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님, 순복음신안산교회(최용우 목사님) 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태승, 이태원 내과, 정경자, 최인철, 함석숙 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하나은행)
예 금 주 : 디시이엠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January News Letter DCEM 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조용기 목사, 2012년 신년축복대성회 오산리최자실금식기도원에서개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생명력 있는 교회 될 것 당부
송구영신예배로 희망찬 2012년 새해를 열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October News Letter DCEM 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순복음동경교회 45주년 및 영산 1주기 추모예배

일본 일천만구령운동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지난 9월 16일 동경 신주쿠문화센터에서 순복음동경교회의 45주년을 기념하고 천국 가신 조용기 목사를 추모하는 예배가 드려졌다. 이날 성회는 DCEM이 주관하고 순복음동경교회가 주최했다. 또한 순복음일본총회가 후원하여 일본 전역의 선교사 및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한국에서도 많은 교역자와 성도들이 참석해 스승 조용기 목사의 복음 열정을 되새기며 일본 일천만 구령운동의 사명을 재확인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믿음의 역사'(히 11:1~6)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영훈 목사는 "거룩한 꿈을 꾸고 말씀을 붙잡아 조용기 목사님이 헌신한 일본 일천만구령운동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오중복음 삼중축복 4차원의 영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될 것"을 당부했다.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는 "복음의 불모지에서 일천만구령운동을 전개한 조용기 목사님의 뜻을 이어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행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설교 후에는 통성기도를 이어가며 스승 조용기 목사가 한평생 외친 일본 일천만복음화가 완수되도록 참석자들 모두가 힘써 기도했다. 또한 가족을 대표해 국민일보 조민제 회장이 감사인사를 전했다.

성회를 통해 조용기 목사를 추모하고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저마다의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말하는 시간도 가졌는데, 순복음동경교회 청년부 소속 야마다 혜리 성도는 "청년부뿐만 아니라 더 어린 미래 세대를 위해서 조용기 목사님의 일천만 구령 비전을 이어가겠다"며 조용기 목사가 남긴 신앙의 유산을 이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성회에 참석한 순복음동경교회 성도들은 1978년 시작한 교회사역의 어제와 오늘을 점검하고, 또 내일에 대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고 전했다. 성회는 교회학교 학생들의 찬양과 워십으로 시작되어 각 부서의 달란트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연합찬양대는 조용기 목사가 작사한 '내 평생 살아온 길'을 찬양했고,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와 참석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를 부르며 조용기 목사를 회고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좇아 45년을 달려온 동경교회와 일본 내 모든 순복음교회들이 더욱 도약하길 기대한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40절)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나의 생애 속에 행하시는 여러 가지 역사를 체험하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더욱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삼남매의 가정에 갑자기 나사로가 죽을병에 걸린 불행이 다가왔습니다. 그 누이들이 온 힘을 다하여 돌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신속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출발하지 않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1.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근처에 도착하셨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뛰어 나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며 말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예,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줄을 나는 압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르다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미래로 연기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셔서 지금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지금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2.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어 냄새나는 시신으로 무덤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이제는 너무 늦었고 답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요 11:40) 말씀 하시고 무덤 문에 버티고 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요 11:41) 하신 후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자 죽음의 세력은 더 이상 나사로를 붙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위엄 있는 말씀에 놀라서 화닥닥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악과 더러움, 질병, 가난과 저주에 묶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오라버니 나사로를 껴안고 집으로 돌아갈 때,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하늘에 사무쳤겠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기쁨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3. 4차원의 믿음을 가져라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요, 미래의 예수님이 아니요, 지금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그 믿음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아무리 입으로 "주여, 주여!" 해도, 내가 믿음으로 용기 있게 모험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는 모든 세상 사람이 보는 앞에서 주님이 보는 앞에서 불신앙의 무덤 문을 옮겨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음이 적다고 통곡할 필요가 없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셔서 나에게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나의 신앙 고백과 믿음의 실천 위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가 가만히 앉아있는데 주님 스스로 나와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께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주님께서 돌봐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주의 말씀대로 여러분께서 담대하게 믿음을 실천하면 그 믿음의 실천을 통하여 주님께서 오늘날도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크고 작은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회를 개막하기 전 사전에 성회를 준비하는 스텝들과 기도로 시작하는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DCEM/순복음동경교회담임)

"드디어 입장이다" 성회장 신주쿠문화센터에 입장하기 시작하는 일본성도들과 일본전역 목회자들

순복음동경교회 교회학교 찬양워십팀의 깃발&템버린 워십으로 성회1부를 시작했다

성회1부 "그날에(その日全世界が)"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순복음동경교회 교회학교 중고등부 찬양팀

동경교회 45주년 기념성회 및 조용기목사님 1기 추모예배 1부에서 전체 연합하여 워십을 하고 있는 순복음동경교회 교회학교 아동부와 중고등부 찬양팀

동경에서 조용기목사님 추모예배를 주최한 시가끼 시게마사목사(순복음동경교회), 2부 강사로 초청된 이영훈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 조민제회장(국민일보), 김춘수장로(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회장)(우측부터)

순복음동경교회 연합성가대의 입례찬양으로 2부 추모예배를 올리고 있다

신주쿠문화센터 대형 스크린을 채운 조용기목사님 추모 1주기 영상

상영 후 강단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찬양을 하는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와 찬양단

"말씀을 붙잡아 조용기 목사님이 헌신한 일본일천만구령운동 이어나가길.." 등단한 이영훈목사 그리고 성회에 참석하여 조용기목사님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동참한 일본성도들